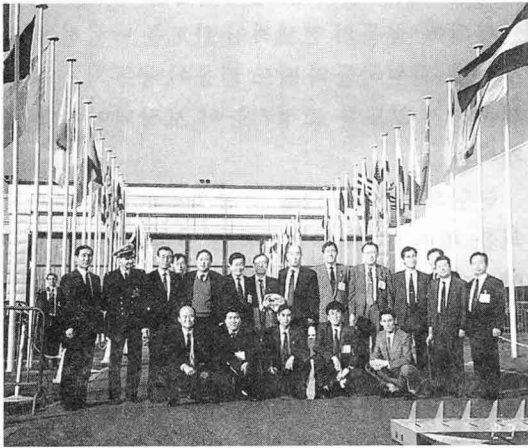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 佛・伊 防産業界 방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 대표 20여명은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19일간 프랑스 및 이탈리아 방위산업을 방문하였다. 사진은 우리 대표단 일행이 프랑스 국방부대표단과 회의하는 모습



제12회 프랑스 해군장비 전시회가 열린 파리 근교 Le Bourget 전시회장 입구에서 함께 자리한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일행



우리 대표단 일행은 이탈리아 국방부를 방문하여 Romeo 준장(NAD 제3과장)등 관계관들과 양국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 대표 20여명은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19일간 프랑스 및 이탈리아 방위산업을 방문하였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프랑스 방문에서 우리측 일행은 파리근교의 Le Bourget에서 열린 제12회 프랑스 해군장비 전시회를 참관하였고, 프랑스 국방부 대표단과의 회의와 함께 Aerospatiale社등 6개 프랑스 방산업체를 살펴보았다.

10월 24일 프랑스 국군회관에서 개최된 프랑스 국방부 대표단과의 회의는 프랑스 방위산업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시청과 함께 양국의 방산협력 현안에 대한 전체 토의와 함께 분야별 업체간 토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 국방부 Daniel Bethault 亞洲局長은 환영인사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는 방산협력의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양국 방산업체간의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측 단장인 柳俊馨 防振會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히 항공, 유도, 전자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생산과 조립등을

맡고 프랑스가 기술지원과 판매를 담당하면 좋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어 이번 방문이 韓·佛 방산협력의 의지를 촉진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정부간 방산협력 방침 결정에 이어 양국의 민간업체끼리 자주 만나 협의하는 것이 성과가 클 것임을 역설하면서, 양국업체간의 협의기구 구성을 제의하였다.

프랑스 방문에 이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이탈리아 방문에서는 이탈리아 국방부를 찾아 방산현황 소개등을 청취하고 대표단 회의를 가졌으며, Agusta社 등 5개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현황소개와 함께 관련시설을 둘러보았다.

11월 2일 열린 이탈리아 국방부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탈리아 국방부 Renzo Romano 준장(NAD 제3과장)은 업체대 업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최근 설립된 RITAD가 장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좋은 상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측 柳俊馨 단장은 RITAD가 설립되어 防振會의 상대역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간의 접촉도 중요하나 업체간의 접촉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서로를 잘 알기 위해 이탈리아 방산업체의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이탈리아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면 상호이익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Riscassi. 韓美연합사령관 초청 특별강연회 열려 ...



韓·美 양국의 방산협력 증대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R.W Riscassi 한·미 연합사령관 초청 특별강연회가 11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주제로 양국 방산관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韓·美 양국의 방산협력 증대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사령관 초청 특별강연회가 11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방산관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 방위산업 협력증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Robert W. Riscassi 大將은 북한이 10년간의 현대화 및 증강계획을 마침으로써, 戰後時代를 통해 최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 육군의 60%가 비무장지대 1백km 이내에 강압적으로

버티고 있으며, 이는 방어자세가 아니라 공격태세를 역설하였다.

이어 Riscassi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부문에 대한 최신 기술의 도입과 일괄적 운용(Full Package Fielding)의 개선 및 우수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 그는 한국의 자위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생산능력이 증대된다고 볼수 있으며, 기술 공유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술이전이 한·미관계 발전의 중요한 단계임을 언급하였다.